

도의회 의원들 도정·학예 행정 질문 잇따라 “미국 관세 정책 특별한 대책 마련을”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개선
부가가치세 관리 부실 지적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개선
동부권특별회계 개편 등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의원들이 8일 열린 제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질문을 이어갔다.

▲강태창 의원 “미국 관세 정책 특별한 대책 마련을”

먼저, 강태창 의원은 도정 운영과 관련, 김관영 도지사에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개선, 자치경찰 이원화와 제2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부실한 이전 공공기관 관리를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의 회담고문으로 전락한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 “부가가치세 둘러싼을 기회 놓치고도 나몰라라”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북자치도의



강태창 의원



서난이 의원



김성수 의원



이정린 의원



전용태 의원

부가가치세 경쟁정구 미이행 등 부가세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외에도 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부가세 환급분은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자치도의 부가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노동 정책 이행실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위험한 노동현장,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며,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및 보강인력 충원 △근로자 안전을 위한 가정 전북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특수형태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도민 체감 정책으로”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북사랑도민증 제도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실적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사랑도민증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면서도 “지금처럼 행정적 동원과 실적 관리에만 치우친다면 도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전북사랑도민증이 단순한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전북을 잇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린 의원 “구조 아닌 도민 체감 성과로 증명해야”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동부권특별회계의 존속 연장과 성과 중심 개편 △균형발전 전담조직의 격상 △미래첨단산업 예산의 권역 편중 시정 △생활안전형 도로관리 보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구조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남원 학생의 타지

교고 진학 증가에 대응해 인월중·고 기숙사 신설 등 지역 정주형 교육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전용태 의원 “초고령사회·발달장애 등 문제 선도해야”

전용태 의원(진안)은 전북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발달장애인 평생보장과 지원체계 강화, 학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현황 점검 및 미비점 보완을 촉구했다.

초고령 사회 대응 전략과 관련, 전 의원은 △성년후견 종합지원센터 설립 △공공후견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제작·보급 △후견인 양성·관리 체계 구축 △도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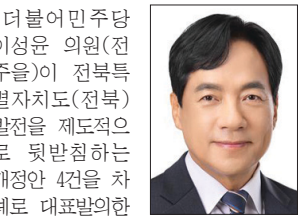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평생보장 등과 관련,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 전용 단체보험 및 특수신택 상품 개발 △부모 사후 대비 패키지 제도화 △자립지원주택 정책협의체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 도내 학교 전기재해 문제를 지적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며, 전북 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학교 모델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발전 4법’ 대표발의

민주 이성운 의원, 지역 싱크탱크와 협업 따라
대광법 개정 후속 ‘도로버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용태 의원 “초고령사회·발달장애 등 문제 선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전북특별자치도(전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 4건을 차례로 대표발의한다. 전북연구원과의 정책간담회 산물인 ‘전북발전4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각 분야에서 전북권 발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8일 첫번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이다.

지난 4월 2일, 대광법 적용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 전주권에 광역교통망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성운 의원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친정을 발송하고 정청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설명하는 등으로 해당 개정안 통과에

합했다.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개정된 ‘대도시권’ 기준을 도로법에도 일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규범 간 불일치를 해소시켜 실무상 혼선을 막고, 전북과 전주권 교통인프라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성운 의원이 ‘전북발전 4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에는 지역 싱크탱크와의 협업이 주요했다. 지난 6월 26일, 이성운 의원과 전북연구원은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북 발전에 필요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전북연구원 측 입법제안을 의원실이 검토 후 실무자협업을 수행했고, 그 결과 4건의 개정안을 성안할 수 있었다.

이성운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연구원 간 연구·실무 공조, ‘여의도-전북 협업 모델’이 법률안이라는 결실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입법기관과 연구기관의 각 장점을 살린 이번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향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싱크탱크와의 더욱 활발한 업무교류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진기마을 호우 피해 발생... “시민 안전 총력”

정동영 통일부장관, 긴급 점검·주민 불편사항 청취



정동영 통일부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겸임)이 7일 전주시 송전2동 진기마을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주민들이 대피한 용소중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이는 주말 새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살피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만경강 수위와 마을 인근 배수로 등 종합적인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용소중학교 강당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시설과 구호 물품 현황을 확인하고, 진기마을 및 월평마을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주민들은 6일부터 7일 밤사이 내린 폭우로 마을 앞 수로의 수위가 급상승해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장관은 “주말 새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각종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해마다 홍수 피해를 입는 저지대 마을인 송전2동 진기마을에 추가 배수펌프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접수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숙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긴급 재해대책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전주시의 정식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정 장관은 “전주시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전주시 덕진구는 183.7mm, 완산구는 19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재난 문자 발송, 하천 경보 발송, 세월고 및 징검다리 사전 통제, 하천변 산책로 통제, 인더패스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등 안건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8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오승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집에 물건을 쌓는 저장장박 가구에 대한 구조적 대응시스템 마련을 제안했고, 이만재 의원은 취약구역 전수조사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사전예방 대책을 촉구했으며, 오명재 의원은 대중목욕탕 건립, 소재지 산책로 조성 등 도시의 읍면지역의 균형성장을 강조했다.

또한, 송기순 의원은 송산봉 조선동네의 홍보 마케팅 강화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으며, 최재기 의원은 정읍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종사자 등에 대한 화화사고 행동요령 교육을 제안했다.

안전심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선미·오승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해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재) 소관으로 서항경·최재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항경·오명재·송기순·고경운·이도형·이상길·정상철·최재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항경·이상길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향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송기순·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게스 인종·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어, 고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제 농업 및 소득기준 현실화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후 임시회를 끝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빛원전 대책 특위 제3차 회의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8일 제42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도민안전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원전 관련 현안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근 5년간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고·고장 사례를 공유하며 상시 모니터링과 안전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안(약칭)과 관련해 전북도가 산업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울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창·부안군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윤수봉 도의원 “이서면 도시재생 공모 선정 환영”

윤수봉(완주1)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8일 완주군 이서면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서면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101억 1,4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신생활 SOC 확충 △보행안전환경 조성, △상생지원센터 조성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소규모 주거지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고령화·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만호 기자

“의장으로서의 비전·개인 삶의 철학 담았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

‘소년, 대양을 품다’

20일 출판기념회 개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4선거구)이 자신의 삶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소년, 대양을 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문 의장은 8일 오전 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오는 20일 오후 2시 군산대학교 고촌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 의장의 인생 여정과 정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의장은 1954년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 중앙고와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생화학과를 거쳐 군산대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제11대와 12대 연속으로 군산시 제4선거구에서 전북도의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현재 제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의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의정활동 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의 헌신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군산시 체육회 부회장, 군산시 9대 태권도협회장을 지낸 그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이 8일 오전 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20일 군산대학교 고촌관홀에서 열리는 ‘소년, 대양을 품다’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답변을 하고 있다.

전북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한 ‘타고난 체육인’으로 통한다.

그리고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초대 센터장, 제26대 금강라이온스 회장,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북본부 홍보대사 등 봉사 활동에도 적극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시민 운동에도 뜻을 두고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을 역임하고 호원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을 지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군산 시민의 장 체육장을 비롯, 2023년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7월 19일에는 그간의 체육인으로의 공적을 인정받아 무주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수여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문 의장의 2026년 지방선거 군산시장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자전적 에세이 ‘소년, 대양을 품다’가 전북도의의회 의장으로서의 비전과 개인적인 삶의 철학을 어떻게 담아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영태 의장은 개회사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순해배상 소송과 관련, “시민들께 걱정을 안겨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조기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